

# 보성군, 제11회 보성세계차엑스포 발대식 개최



보성군은 24일 보성다비치콘도에서 '제11회 보성세계차엑스포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발대식을 통해 보성군은 세계차엑스포 조직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보성 세계차엑스포 성공개회를 위해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보성세계차엑스포 조직위원회는 김철우 군수와 손학래 前한국도로공사 사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학계, 문화계, 세계 차 전문가와 각계각층의 국내·외 전문가가 자문위원으로 위촉됐으며, 출향향우, 기관단체장 등은 추진위원을 맡아 총 130여 명으로 출범했다. 보성군민을 주축으로 한 범군민지원협의회 30여 명은 지역 사회 내에서 엑스포 홍보를 비롯한 축제 지원에 나선다. 이날 발대식은 식전공연과 엑스포 홍보영상

## 보성세계차엑스포 조직위원 위촉 성공 다짐 결의 오는 4월 29일부터 5월 7일까지 9일간 통합 축제형

을 시작으로 △위촉장 수여, △엑스포 추진계획 보고, △응원메시지 전달, △성공 기원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했다.

특히 조직위원회의 엑스포 성공 개최 염원을 담은 미디어 퍼포먼스는 차 씨앗이 자라 차밭을 이루고, 대한민국 차 문화산업을 선도하는 보성 차를 세계인들에게 각인시키는 메시지를 연출했다.

2023년 제11회 보성세계차엑스포는 오는 4월 29일부터 5월 7일까지 9일간 통합 축제형으로 보성군 일원에서 열린다.

이번 엑스포는 '천년의 보성 차, 세계를 품다'라는 주제로 △보성다향대축제, △서편제보성소리축제, △보성군민의 날, △일립산 철쭉제, △별고갯길 레저벨레대회, △전국단위 스포츠대회 △불꽃축제 등 다양한 축제와 부대 행사로 구성된다.

또한, 이색 도슨트와 함께하는 주제관, 6개국 참여 세계차문화전시관, 차 명상관, 월드 티 퍼포먼스, 세계 티 로드, 동양 차문화 5,000년 유물전시회 등으로 관람객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계획이다.

김철우 공동위원장은 "대한민국 명실상부 녹차수도 보성은 천년의 차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수십 년간 차 산업과 차 문화·관광에 적극 투자해왔다"며 "보성군의 모든 인프라를 잘 활용해 최고의 엑스포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손학래 공동위원장은 "차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재미있는 콘텐츠를 마련해 차 산업의 성장과 발전의 기회를 이끄는 엑스포를 만들자"라고 말했다.

보성=김덕순기자

## 순천 푸드아트페스티벌 4년 연속 축제콘텐츠 대상

순천시의 대표 축제인 '푸드아트페스티벌'이 4년 연속 대한민국축제콘텐츠 대상에 선정됐다.

24일 순천시에 따르면 이 상은 전국 지역축제를 대상으로 콘텐츠의 우수성, 발전 가능성을 심사해 시상해왔다. 순천 푸드아트페스티벌은 축제콘텐츠 부문에서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실제 2022년 순천 푸드아트페스티벌은 31만여 명의 관광객 수를 기록하며 성황리에 열렸다. 엔데믹 시대 돌입과 함께 선도적으로 대규모 축제를 기획해 일상의 복귀를 준비했고, 중앙로 일원에서 순천부유성 남문터 광장까지 축제 장소를 확장해 더 많은 콘텐츠를 안전하게 즐길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순천의 식재료를 활용해 만든 푸드포차와 순천형 특화음식 부스는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와 함께 주변 상가와 연계한 순례 프로그램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지역예술인들이 대거 참여한 문화 놀이터 등 다양한 체험 거리를 제공하면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는 즐거움을 선물하기도 했다.

2016년 처음 시작된 순천 푸드아트페스티벌은 원도심을 무대로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만들어가는, 음식과 문화예술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순천시의 대표축제이다.

순천=김승호기자

## '낮과 밤이 빛나는 광양시티투어' 3월부터 가동

역사·야경 등 주제 및 계절별 코스 운영 15인 이상 단체 신청시 단독 투어 가능

광양시의 구석구석을 둘러볼 수 있는 광양시티투어가 오는 3월부터 가동된다.

광양시는 3월부터 광양 구석구석을 문화 관광해설사와 함께 여행하는 '낮과 밤이 빛나는 광양시티투어'를 다채롭게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매주 수요일 역사 코스, 금요일 야경 코스, 토요일과 일요일은 광양매화축제, 인근 지자체 박람회 연계 코스 등 테마별, 계절별 코스를 준비했다.

관광지 4곳 이상, 식사 1식 이상 등을 충족하는 15명 이상의 단체가 투어 7일 전까지 예약하면 월·화·목요일에 한해 희망하는 코스로 단독 투어가 가능하다.

3월 시티투어는 역사 코스, 야경 코스, 토요일에는 봄 특화코스로 운영하고 광양매화축제 기간에는 축제장을 반영한 특별코스를 운영한다.

역사 코스는 순천역에서 오전 10시 10분, 광양읍터미널 오전 10시 45분께 투어 차량에 탑승할 수 있다. 전남도립미술관, 광양예술창고 등을 투어한 후 광양불고기 특화거리에서 점심을 즐기고 인사리 공원

의 낭만에 빠진다.

이어 광양역사문화관, 광양장도박물관, 광양공시전수교육관 등을 탐방하고 오후 5시 05분께 광양읍터미널을 경유해 오후 5시 40분 순천역에 도착하는 코스다.

야경코스는 순천역에서 오후 3시 20분, 광양읍터미널 오후 3시 55분께 탑승해 전남도립미술관과 광양예술창고 등을 투어하고 광양불고기특화거리에서 저녁식사를 즐긴다. 이어 구봉산전망대, 이순신대교, 해오름육교 등의 아름다운 야경을 즐기고 오후 9시 25분께 광양읍터미널을 경유해 오후 10시 순천역에서 일정을 마무리한다.

토요일 코스는 순천역(오전 10시 10분), 광양읍터미널(오전 10시 45분)에서 탑승해 전남도립미술관, 광양예술창고를 관람하고 불고기특화거리에서 중식을 즐긴다.

이어 백운산자연휴양림, 광양역사문화관, 구봉산전망대 등을 여행하고 광양읍터미널(오후 5시 50분), 순천역(오후 6시 25분)에 도착한다.

일요일 코스는 순천역(오전 10시 10분), 중마관광안내소(오전 10시 55분)에서 탑승해 배알도 섬 정원, 윤동주 유교 보존 정병욱 가옥, 광양김시식 등을 투어하고 이순신대교 먹거리타운에서 중식을 즐긴다.

광양=김현근기자



## 고흥군, 농업단체 대표와 '농업분야 대도약' 간담회 농정 핵심과제 공유 등 더 큰 도약 위한 소통의 시간 마련

고흥군이 24일 군청 흉양홀에서 농업인과 함께 농정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농·축산관련 직능단체 대표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분야 대도약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민선 8기 농정시책 추진방향과 핵심과제를 각 단체와 공유하고, '10년 후 고흥인구 10만 비전' 달성을 위한 농업의 역할 모색 등 농업분야 대도약 전환기 마련을 위해 각 단체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의 시간으로 마련됐다.

주요내용으로 각 분야별 핵심 사업인 ▲농정분야의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 및 고흥군 통합온라인쇼핑몰 '고흥몰' 홍보, 전략직불금 시행, 친환경농업 인증품목 다양화 추진 ▲축산분야의 스마트축산 ICT한우단지 조성 추진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우량종구 보급체계 구축, 종합검정실 운영 ▲스마트팜 분야의 혁신밸리사업, 임대형스마트팜 조성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지역 농업발전과 고흥군의 힘찬 도약을 위해 민관이 함께 뜻을 모으기로 했다.

공영민 군수는 "최근 국내·외적 여건 악화로 농사짓기가 참 어려운 현실이지만, 고흥만의 '첨단 농수축산 밸리 조성' 등 농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통해 청년 농업인을 적극 양성할 계획"이라며, "농업의 애로사항과 문제 해결은 항상 현장에 답이 있으므로, 현장의 다양한 소리를 최대한 농정시책에 접목해 지역 농업발전 대도약의 발판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고흥=기동취재본부

## 여수시, 통합방위태세 확립 '우수기관'...광주·전남 유일

여수시가 광주·전남에서 유일하게 통합방위태세확립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통합방위본부장(합동참모본부장)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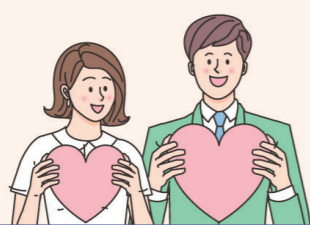
시에 따르면 이번 수상은 군, 지자체, 예비군, 민방위대, 경찰·해경·소방, 국가중요시설 등의 통합방위 역량과 운용 능력을 평가했다.

평가에서 시는 지난해 ▲통합방위예규 최신화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 ▲작전상황 시 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 공유 등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특히 무인체계(무인수상정, 무인항공기)를 활용해 민·관·군·경 및 산·학·연 비상대비 공동 시범훈련 실시로 초기대응 역량을 확보했고, 해양감시 무인수상정 기술개발 참여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이번 수상은 관계기관과 시민이 함께 여수지역의 완벽한 통합방위태세를 위해 노력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 지역통합방위태세 확립에 최선을 다해 어떠한 위협에서도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여수=김현근기자



##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 긴급복지지원제도



### 누가 받나요?



방임, 유기, 학대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가정폭력, 성폭력



수도, 가스 등의 공급 중단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구금시설수용, 실직, 휴·폐업



화재, 경매, 강제퇴거 주거지 상실

### 무엇을 받나요?

- 생계지원 : 월 126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6회
- 주거지원 : 월 64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12회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 지원(퇴원전 신청)
- 기타지원 : 교육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 맞춤형(생계) 급여 수급자의 경우, 의료지원(일부)만 가능



##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광산구 복지정책과 062-960-8398, 8405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가까운 주소지의 동행정부지원센터에서 상담·신청 가능합니다 ”

선지원 후조사 (소득·재산 확인)

사후조사 결과 기준초과시 지원금 환수 조치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365만원(4인 가구)
-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 일반재산 1억 8,800만원 이하(대도시 기준)

고독사 예방을 위해 동행정부지원센터에서 찾아가는 방문상담을 추진 중입니다. 홀로 어렵게 사시는 분 또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할 경우 가까운 주소지 동행정부지원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 바랍니다.